

순수성은행복, 평화, 기쁨의바탕이다.

오늘 밥다다는 곳곳에서 온 성스러움과 행복을 가진 그의 자녀들 모두를 보고 있다. 이 드라마 전체에서 다른 어느 때에도 거룩하면서 행복한 특질을 가진 자녀들이 이토록 많이 모이는 집회는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하’나 ‘전하’라는 칭호로 불리지만 만일 그 실질적인 증거를 보면 그만큼의 순수성이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다. 밥다다는 이렇게 위대하고 순수한 영혼들의 집회가 다른 어디서 열릴 수 있었는지 보고 있었다. 순수해지겠다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모든 자녀가 다 가졌는데, 단지 행위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 말, 행위 세 가지 모두에서 순수해지려는 생각이다. 다른 어디서도 순수해지겠다는 이 고귀하고 결단력 있는 생각은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어디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다른 어디서도 쉬울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모두 순수성을 훈습하기가 아주 쉽다고 여긴다.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밥다다에게서 지식을 받아왔으며, 그 지식의 힘으로 너희는 “영혼인 나”의 원래의 영원한 형태가 순수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들 본래의 영원한 형태를 알아차렸으므로 이 의식이 너희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너희의 진정한 형태가 사실은 순수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안다.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형태는 불순함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졌다.

너희는 너희 본래의 종교, 본래의 집, 아버지, 본래의 형태와 행위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아주 쉬워졌다. 오늘날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혼들조차도 그 일이 불가능하며 이상하다고 여기는 반면, 순수한 영혼인 너희들은 그 불가능을 아주 쉬운 것으로 경험했다. 순수성을 택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너희는 순수성이 너희의 본래 형태라고 온 세상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순수성의 힘으로 인해 순수성이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평화와 행복이 있다. 순수성이 바탕이다. 순수성은 평화와 행복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평화와 행복은 순수성의 자손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순수성이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행복하기도 하다. 너희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다. 너희는 변함없이 늘 행복하게 지내는 자들이다. 너희가 거룩할 때는 틀림없이 또한 행복하기도 하다. 순수한 영혼들을 나타내는 징표는 항상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다다는 시각에 믿음 가진 순수한 영혼들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는지 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찾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평화와 행복의 바탕은 순수성이다. 그 바탕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성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와 행복을 일시적으로만 겨우 얻을 뿐이다, 즉 그들은 한 순간 그것을 갖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놓친다. 순수성 없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 모두 바탕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화와 행복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마치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가듯이 평화와 행복은 순수한 영혼들에게 자동적으로 온다. 그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아무리 애써 봐도 그들은 기어코 자기 어머니에게 갈 것이다. 이처럼 평화와 행복의 어머니는 순수성이다. 순수성이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평화, 행복, 기쁨이 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이 되었느냐? 슬픔 없는 나라의 황제들이다. 너희는 이 오래된 세계의 황제가 아닌, 슬픔 없는 나라의 황제들이다. 이 브라민 가족에는 아무 슬픔도 없다, 즉 그것은 행복한 세계다. 그래서 너희는 이 행복한 세계의 황제들, 슬픔 없는 나라의 황제들이 되었다. 너희는 또한 “거룩한 이”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각자 왕관을 가졌고 옥좌도 가졌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왕관이다. 빛의 왕관은 순수성의 상징이고 너희는 밥다다의 마음의 옥좌에 앉혀졌다. 그래서 슬픔 없는 나라의 황제들의 왕관은 독특하고,

너희들의 옥좌도 역시 독특하다. 너희의 주권은 독특하며, 황제인 너희들 역시 독특하다.

오늘날 인간 영혼들 모두가 그토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밥다다는 그런 자녀들에게 자비심을 느낀다. 그들은 계속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한다. 노력이란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뜻인데, 그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무엇을 성취하느냐? 행복이야 있겠지만, 행복과 더불어 그들은 뭔가에서 슬픔도 역시 받을 것이다. 만일 다른 것이 아니라면, 잠깐의 행복과 더불어 최소한 다른 두 가지, 즉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있는 곳에는 편안한 휴식이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처럼 행복과 더불어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의 원인들이 있는 반면, 너희들은 모두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았다. 너희들은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해결의 화신이 되었다. 문제는 너희와 같이 놀 장난감으로 온다. 그들은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와 놀려고 온다. 너희는 겁먹는 자들이 아니겠지? 모든 힘이라는 보물을 타고난 권리로 가졌는데, 너희에게 다른 무엇이 부족할 수 있느냐? 너희는 충만하다, 그렇지 않느냐?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인 자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만일 재미 한 마리가 꼬끼리의 발 아래 밟힌다면, 그것이 눈에 띄겠느냐? 것처럼 그런 문제들 역시 마하라티인 너희들 앞에서는 재미들과 같다. 모든 것을 게임이라 여김으로써 너희들은 항상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상황도 작아질 것이다. 오늘날 아이들은 지각을 써서 어떤 게임을 하게 되느냐? 너희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그 애들이 지켜워하겠지만 게임으로는 수학을 아주 즐겁게 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 모두에게도 역시 문제들은 재미와 같다, 그렇지 않느냐? 순수성, 평화, 행복의 힘이 있는 곳에는 꿈에조차 슬픔이나 평화롭지 못함의 물결이 있을 수 없다.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은 강력한 영혼들 앞에 올 용기가 없다. 순수한 영혼들은 늘 변함없이 명랑하게 지내는 영혼들이다. 항시 이것을 의식 속에 간직해라. 너희들은 이제 혼란, 비틀거림, 슬픔, 평화롭지 못함 등의 여러 유형의 거미줄에서 멀어졌는데, 왜냐하면 단 한 가지의 것에 대해서도 슬픔이 없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슬픔도 자손들 전체를 데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여러 거미줄에서 벗어났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그런 행운아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오늘 호주에서 온 자들이 여기 앉아 있다. 밥다다는 항상 호주 출신들의 특기에 관해서, 즉 그들의 타파샤와 대 기부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끊임없이 봉사하는 데 대한 깊은 사랑의 타파샤는 타파스위 영혼인 너희들과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준다. 각 나라별 방법과 확장을 보며 밥다다는 특별히 더 기쁘다. 호주는 어쨌든 특별하다. 거기서는 모든 이가 아주 신속히 봉사하기 위해서 버림의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의 센터가 열렸다. “우리가 행운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행운을 창출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 결단력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타파샤이다. 이렇게 버림과 타파샤라는 방법으로 너희는 발전하고 있다. 봉사하려는 동기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한한 감정들을 끝낸다. 버림과 타파샤는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이해가 되느냐? 너희에게는 집회의 힘이 있다. 한 사람이 뭔가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행했다. 한 사람이 뭔가를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는 집회가 분열될 것이다. 한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다른 사람은 열의를 갖고 협조해서 그것을 실제적인 형태로 옮긴다. 그것이 집회의 힘이다. 판다바들의 훌륭한 집회도 있다. 그들은 “당신인가 나인가”에 말려드는 일이 결코 없다. 그들은 그저 “바바, 바바”라고만 하고, 그러면 상황들이 끝난다. 갈등은 너희가 “당신 또는 나” 아니면 “내 것과 당신의 것”에 사로잡힐 때 생긴다. 아버지를 너희 앞에 두면 장애물들은 너희 앞에 올 수 없다. 너희는 한결같이 장애가 없는 것을 경험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단계를 경험하는 영혼들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 단계는 강한 단계이다. 되풀이해서 장애물에 영향 받는 자들은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단단한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장애 없이 자유롭게 머무는 영혼들은 강력하고 남들도 역시 강력하게

만든다. 뭐든지 이미 깨진 것을 접착제로 붙여놓으면 그것은 약해진다.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고 장애 없이 지내온 영혼들은 마지막에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등으로 합격하고 제 1사단에 들어간다. 그러니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장애 없이 자유로운 단계를 경험하겠다는 목표를 변함없이 간직해라. 장애가 오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끝낼 수 있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장애가 올 때마다 거둬서 그것들을 끝내야 함으로써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만일 봉사하는 데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너희는 하나에 대해 수백만 배의 보상을 쌓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장애 없이 자유로웠던 영혼들은 장애의 파괴자로 송배된다. 장애의 파괴자라는 칭호는 송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의 것이다. “나는 장애의 파괴자인 송배 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짐으로써 너희는 한결같이 장애 없이 계속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날고, 남들도 역시 날게 만들 것이다. 이해가 되느냐? 너희는 각자의 장애물들을 파괴했지만 남들을 위해서도 역시 장애물의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 보아라, 너희는 처음부터 장애를 겪은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도구 영혼(닥터 니르말라)을 찾았다. 그녀는 항상 사랑하면서 초연했다. 그녀는 약간 엄하지만 그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너희에게 그런 엄격한 선생이 없었다면 그런 확장은 없었을 것이다. 이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쓴 약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드라마에 의해서 너희는 반드시 도구 영혼들의 색깔에 물든다. 그녀가 오자마자 봉사의 도구가 되었듯이 영혼들은 호주에 오자마자 센터를 여는 봉사의 도구들이 된다. 호주 전역과 호주와 연결된 장소들에 버림의 느낌에서 생기는 이런 파동들로 확장이 일어났다. 타파샤와 버림을 가진 자들은 고귀한 영혼들이다. 너희 영혼들 모두가 빠른 노력가들인데, 노력가라 해도 반드시 특기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이가 지금 이때 완성되어 가고 있다. 완성되었다는 자격증은 아직 아무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완전해 가까워졌다. 이것은 등수대로다. 어떤 이들은 아주 가깝고, 나머지는 등수대로 앞이나 뒤에 있다. 호주에서 온 자들은 운이 좋다. 버림의 씨앗이 너희가 행운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삭티 군대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밥다다에게서 무척 사랑 받는다. 용기가 있는 곳에서는 밥다다의 도움이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는 한결같이 충족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충족감은 성공의 기반이다. 너희 모두 충족된 영혼이니 성공은 너희가 타고난 권리다. 이해가 되느냐? 호주에서 온 자들은 제일 가깝고 가장 소중하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외의 권리가 더 있다. 앗차.

아비약트멀리에서받은질문과대답.

질문: 언제 삭티 군대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겠느냐?

대답: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와 똑같은 하나의 순수한 생각에 안정해 머무는 것을 집단적으로 훈련할 때다. 집회에서 단 한 명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이가 한 분 안에 잠겨있으면서 몸이 없다는 하나의 순수한 생각에 안정해 머무는 훈련을 쌓을 때, 삭티 군대의 이름은 세상에서 영광되게 빛날 것이다.

질문: 물리적인 전쟁의 싸움터에서 병사들은 무엇을 토대로 승리하느냐? 너희들의 승리의 복은 언제 올리겠느냐?

대답: 군대에서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단 한 마디 명령에 총을 쏘기 시작한다. 단 하나의 명령에 그들은 동시에 적을 포위하며 오직 그래야만 그들은 승리한다. 마찬가지로 영적 군대에 속하는 모든 이가 단 하나의 신호에 다 함께 집단적으로 1초 만에 한결같은 단계에 안정될 때에만 승리의 복이 올릴 것이다.

질문: 너희는 철시대의 산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지시 중 어떤 것을 항상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대답: 아버지는 “모든 이가 1초 만에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에 안정되어라”라는 이 지시 하나만 내려줄 것이다. 모든 이의 생각이 똑같은 하나의 생각에 합쳐질 때 철시대의 산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 1초는 영원히 지속될 1초일 것이다. 너희가 1초 만에 안정되고 나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질문: 브라민 자녀들 각자의 책임은 무엇이나?

대답: 집회가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에 안정되도록 집회 전체에 협조하는 것이 브라민 각자의 책임이다. 너희들은 무지한 영혼들에게 지식의 깨달음을 주려는 시도를 계속하려는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늘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집회가 한결같고 안정 단계에 안정해 머물 수 있고 집회의 힘을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좋은 염원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라. 현실에 만족하며 “나 혼자서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질문: 신의 지식에는 어떤 특질이 있느냐?

대답: 집회의 힘이 곧 신의 지식이 가진 특질이다. 브라민 집회의 특질은 신인 형태에서도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 하나의 지시로 실질적으로 계속된다.

질문: 완전한 변환은 어떤 측면에서 완성과 완전함을 가까이 가져오겠느냐?

대답: 각자에게는 육체의식이라는 주된 하나의 산스카르가 있는데, 너희 모두 그것을 성질이라고 지칭한다. 그 산스카르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게 허용하지 마라. 너희의 그 산스카르를 바꾸고 밥다다의 산스카르를 흡수해라. 이것이 최종의 노력이다.

질문: 밥다다의 계시는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겠느냐?

대답: 모든 이에게서 밥다다의 산스카르들이 보일 때다. 밥다다의 산스카르를 본뜨고 그와 대등해져라,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테고 너희는 쉽게 밥다다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단지 “어디를 보든 저에겐 오직 당신만 보입니다”라는 말만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있는 누구를 보든 밥다다의 산스카르를 볼 수 있다.

축복: 윗사람 행세의 흔적마저 버림으로써 자아-존중심을 가진 자비로운 영혼이 되어라. 자아를 존중하는 자녀들은 모든 이를 존중하는 공여자들이다. 공여자란 자비로운 이라는 뜻이다. 그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윗사람 행세를 하며 위세를 부리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왜 이렇지요?”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하라는 게 지식입니까?” 이 모든 것이 미묘한 형태의 윗사람 행세의 흔적이다. 하지만 자아-존중을 가진 자비로운 영혼들은 추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줘서 그들이 협조하게 만들 것이다. 그 사람은 어차피 본인이 지은 카르마의 결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거나 누구든 뭔가를 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받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할 수 없다. 너희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솔로건: 충족감과 행복이라는 특질은 너희가 날아다니는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